

## 『 삼광 구역 공과 』

일시: 2023년 6월 18일 (셋째 주일)

성경본문 : 레위기 19장 13-16절

설교제목 : “네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보통 레위기서는 한 주제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1장은 번제만 다룹니다. 2장은 소제만 다룹니다. 그런데 레위기 19장은 다양한 주제로 가득 찬 장입니다. 이 얘기 했다가 저 얘기 했다가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일상의 삶에 대한 잡다한 내용을 다룹니다. 이것이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은 실질적인 삶의 자리에서 거룩을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즉 일상의 삶에 대한 거룩입니다. 거룩은 삶의 모든 영역을 포함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13절을 봅시다. **13절 “너는 네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삯을 아침까지 밤새도록 네게 두지 말며”**. 본문에 ‘억압하다’로 번역된 ‘아췌크’는 힘있는 자가 그 힘을 사용하여 다른 이의 삶을 어렵게 만들고 자기는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취하는 행동을 가리킵니다. 즉 이 단어는 힘있는 강자가 약자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더불어 착취하다로 번역된 ‘까잘’은 무력으로 어떤 것을 낚아채다는 뜻을 가집니다. 이 두 단어가 함께 자주 사용되는데, 육체의 힘이나 신분의 영향력을 사용하여 상대방을 억압하여 그의 것을 빼앗은 상황을 묘사합니다. 따라서, 네 이웃을 억압하지 말라는 것은 힘있는 강자가 상대적으로 약한 자를 착취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힘을 가진 자들이 남을 억압하는 일을 결코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세상은 양육강식의 법칙이 지배되는 세상입니다. 강한 놈은 살아남고 약한 것은 죽는다는 것입니다. 힘있는 자가 약한 자를 억압하는 일이 팽배한 곳이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러한 양육강식의 세상의 풍조에 휩쓸리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먼저 고용주와 지주에 대한 거룩을 이야기합니다. **13절 “너는 네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삯을 아침까지 밤새도록 네게 두지 말며”**. 고용주는 힘이 있는 갑의 위치에 있습니다. 고용인들은 그에 비해 약자인 을의 위치에 있습니다. 힘있는 고용주의 거룩을 성경은 품삯을 제 시간에 지급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당시 고대 근동에서 기본 노동이 일일 노동입니다. 품꾼이 되는 유일한 이유는 가난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남의 곳에서 농장에서 품꾼으로 간 것입니다. 보통 일일노동은 저녁에 품삯을 주게 됩니다. 그런데 주인이 품삯을 안줍니다. 성경은 고용주가 고용인에게 품삯을 안주는 것은 힘있는 자가 연약한 자를 억압하는 것이고 착취하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이 내용을 잘 보여주는 장면이 신명기 24:14-15입니다. 품꾼이 있으면 형제이든지 외국인이든지 당일에 주고 미루지 말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가난함으로 그가 품삯을 간절히 바란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품삯을 간절히 바란다’를 히브리어로 직역하면 ‘그가 그의 생명을 그 위에 두고 있다’는 뜻입니다. ‘품삯 위에 목숨을 얹어놓은 것’입니다. 그 품삯을 받아서 먹을 것을 사고, 하루를 사는 것입니다. 품삯은 하루의 삶의 의미입니다. 따라서, 그 날 품삯을 주지 않는다는 것은 목숨을 위협하는 행위입니다. 고용주의 거룩은 임금을 제 때 지불하는 것입니다. 더불어, 14절을 봅시다. **14절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네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저주하다’는 단어는 구체적으로 ‘경멸받게 만들다’, ‘천하게 만들다’란 뜻입니다. 따라서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라’는 것은 그 사람이 듣지 못한다 해서 조롱의 말을 하지 마라는 일차적 의미와 함께 그러한 행동으로 그를 천한 존재로 만들어 주변 사람들로부터 경멸을 받게 하지 말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소외시키거나 대중적인 경멸의 대상으로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한, ‘맹인 앞에 장애물은 놓지 말고’는 ‘보지 못하는 자들을 장애물을 놓아서 괴롭히는 행동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육체적으로 더 우위에 있다고 해서 장애인들은 무시하는 행위는

그를 창조하신 자까지 업신여기는 행동이며, 죄악입니다. 장애인들은 비록 육체적 장애가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고귀한 존재입니다. 장애인을 무시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러한 자를 저주하신다고 합니다.(레19:14/신27:18) 하나님은 약자라고 차별하는 것을 매우 싫어하십니다.(약2:1, 3) 그 다음은 재판관에 대한 규례입니다. 레위기 19:15입니다. **레19:15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불의’로 번역된 ‘아웬’은 ‘불공평’이란 뜻입니다. 이것은 ‘공의’로 번역된 ‘체테크’의 반대말입니다. 법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불공평에 대하여 두 가지 상황을 소개합니다. 첫째는 가난한 자의 편을 드는 경우입니다. ‘가난한 자’로 번역된 ‘달’은 물질적으로 궁핍한 자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낮은 계층의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둘째로, 세력있는 자라고 두둔하는 것입니다. 반면 ‘세력있는 자’로 번역된 ‘가돌’은 재산이 많고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자입니다. 한마디로 재판관의 거룩은 공의로운 판결입니다. 대통령이든 가난한 노동자이든 정당한 판결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가난한 자, 세력있는 자 모두가 얼굴이란 단어입니다. 쉽게 말해서 재판할 때 낯짝을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적인 의미로 외모를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신1:16-17/신16:18-20) 기독교인의 판사의 거룩은 공의로운 판결입니다. 마지막으로 16절입니다. **16절 “너는 네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네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는 쓸데없이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또 사람들 사이를 이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네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는 것은 어떤 사람을 사회적으로 매장하거나 죽음에 이르지 않게 하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약한 자들을 억울하게 만들어 무고한 피를 흘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말이나 행동으로 모함, 멸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심지어 동물마저도 억울하게 해서는 안된다고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거룩이 무엇입니까? 레위기의 거룩은 삶의 자리와 일터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제때 월급을 주는 것입니다. 신체적 약자들을 보호해 주는 것입니다. 올바른 판결을 내리는 것입니다. 약한 자들의 눈에서 피눈물 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억울하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입니다. 일상에서 구현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신의 거룩은 무엇이어야 합니까? 나의 직업에서 공의가 무엇이어야 합니까? 자신의 직업에서 공의를 실천해야 합니다. 일상과 직업에서 거룩이 이루어질 때,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땅 위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 ※.말씀 생각해 보기

- 1) 고용주의 거룩은 임금을 제때 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봅시다.(레19:13)
- 2) 장애우들을 멸시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봅시다.(레19:14/신27:18)
- 3) 재판관의 공의는 무엇인지 설명해 봅시다.(레19:15)

#### ※.말씀 나누고 적용해 보기

- 1) 이번 주 말씀을 통해 새롭게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 2) 성경이 말하는 거룩은 일상, 직업에서의 거룩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신의 직업과 일상의 거룩은 무엇이어야 합니까? 여러분의 직업에서 공의를 실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구원원들과 함께 나누어 봅시다.
- 3) 오늘 말씀을 통해 앞으로 내가 달라져야 할 신앙의 모습이 있다면 무엇입니까?